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에 대한
초등학교 영어 전담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2010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 전공

강 기 보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에 대한
초등학교 영어 전담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조 윤 경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강 기 보

강기보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0년 8월 25일



주 심 교육학박사 오 준 일 (인)

위 원 영어학박사 배 재 덕 (인)

위 원 교육학박사 조 윤 경 (인)

목 차

목 차	i
표 목 차	iv
Abstract	vii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 과제	3
1.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5
2.1 TETE의 정의	5
2.2 TETE에 대한 사회적 요구	6
2.2.1 정치·경제적 필요성	6
2.2.2 영어 교육환경의 변화	7
2.2.3 영어 교육의 성격과 목표의 변화	8
2.2.4 영어 능력 평가 방법의 변화	9
2.3 TETE와 영어 교육과정	9
2.4 TETE 관련 언어 습득이론	12
2.4.1 Krashend의 제 2언어 습득 이론	12
2.4.2 Long의 상호 작용 가설	15

2.5 선행연구 고찰	17
2.5.1 TETE에 대한 긍정적 인식	17
2.5.2 TETE에 대한 부정적 인식	20
III. 연구 방법	24
3.1 연구 참여자	24
3.2 연구 도구	26
3.2.1 교사용 설문지	27
3.2.2 학생용 설문지	26
3.3 자료 수집 절차 및 분석 방법	27
IV. 연구 결과	29
4.1 TETE에 관한 초등학교 영어 전담 교사들의 인식	29
4.1.1 교사들의 TETE 실시 정도	29
4.1.2 TETE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31
4.1.3 TETE의 효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	32
4.1.4 TETE 실천을 위한 준비	35
4.1.5 TETE 실행의 어려움 및 개선점	37
4.1.6 교직 경력에 따른 TETE에 대한 인식 비교	41

4.2 TETE에 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	50
4.2.1 TETE의 활용 실태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50
4.2.2 TETE의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53
4.2.3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른 TETE에 대한 인식 비교	56
 V. 결론 및 제언	59
5.1 결론	59
5.2 제언	62
 참고문헌	65
 부 록	69
부록 1. 교사용 설문지	69
부록 2. 학생용 설문지	74

표 목 차

<표 1>	외국어 교육의 목적과 영어 사용 수업의 필요 정도	10
<표 2>	초등학교 영어 전담교사 설문 응답자 분석	24
<표 3>	초등학생 설문 응답자 분석	25
<표 4>	교사용 설문지 문항 구성 내용	26
<표 5>	학생용 설문지 문항 구성 내용	27
<표 6>	수업 시간 영어 사용 정도	29
<표 7>	수업 내용 영역별 영어 사용 정도	30
<표 8>	TETE의 필요성	31
<표 9>	TETE의 적정 횟수	32
<표10>	TETE의 효과: 교사 측면	33
<표11>	TETE의 효과: 학생 측면	34
<표12>	TETE 후 학생들의 반응	34
<표13>	TETE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정도	35
<표14>	TETE를 위한 교사들의 구체적인 노력 방법	36
<표15>	영어 연수가 TETE에 도움이 된 정도	36
<표16>	TETE와 관련한 영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필요한 분야	37
<표17>	TETE에 대한 심적 부담감	38
<표18>	TETE에 대한 자신감	38
<표19>	TETE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	39
<표20>	TETE 진행시 오류를 범하는 영역	40

<표 21> TETE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40
<표 22> TETE 수업의 선행 조건	41
<표 23> 수업 중 영어 사용 정도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	42
<표 24> TETE의 필요성과 적정횟수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	42
<표 25> TETE의 효과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	43
<표 26> TETE 후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	44
<표 27> TETE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와 구체적 노력 방법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	45
<표 28> 영어 연수가 TETE에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	46
<표 29> TETE와 관련하여 영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	47
<표 30> TETE의 심적 부담감과 자신감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	48
<표 31> TETE의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	48
<표 32> 교직 경력에 따른 TETE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요건에 대한 인식	49
<표 33> TETE 진행에서 희망하는 영어 사용 정도	50
<표 34> TETE에서 학생들의 희망하는 교사의 영어 사용 방식	51
<표 35> TETE 내용 영역 중 교사가 사용하는 실제 언어와 학생들이 희망하는 언어	52
<표 36> 수업 중 동료 활동 시 학생들의 영어 사용	53
<표 37> TETE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 이해도, 자신감	54

<표 38> TETE가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 도움을 주는 정도	54
<표 39> TETE가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55
<표 40> TETE가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55
<표 41>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른 TETE에 대한 의견	57
<표 42>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른 TETE 중 교사가 사용하기를 희망하기를 희망하는 언어	57



The Perceptions of Korean Elementary School English Teachers and Students
on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Gie Bo Ka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studies perception of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TETE) based on a survey conducted with 162 student and 60teachers of Elementary school from Busan.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st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is survey have said that they feel TETE is necessary and effective with TETE. but they thought that students evaluated low about concentration and interest rate. Second, the teachers made effort in various parts for TETE. Especially, they put training to practical use. However they are unsatisfied with the experience. Third, the teachers feel uncomfortable with TETE, but they have said confidential about that. They believed TETE is difficult because of the large size of class, different level of the students English ability and the teacher's lack of English oral proficiency.

Forth, the students surveyed expressed a desire for their teachers to use English in various level in class. They especially wanted their teachers to use more 'Classroom English', but they wanted the same rate of Korean and English in the other periods. The higher scoring students wanted that

teachers to use more English than the lower scoring students. Fifth, the students showed a positive attitude toward TETE along with a high level of interest, comprehensive faculty and confidence. But they thought that TETE could not be helpful in enhancing students' English ability.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some useful tips for making TETE more successful.

First, the teachers asked for more opportunities to get domestic or overseas language training. More opportunities for language training will foster more competent teachers. Second, for active English classes with many interactions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the class size should be reduced and the division of classes should be considered according to students' English competence. Third, the time for teaching material development and class research should be secured.

To help TETE acquire high succes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s intensive support.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 1월 대통령 연두 기자 회견에서 “영어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가르치고 있는데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영어를 배우고 나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라고 강조(2000년 1월 14일 중앙일보 2면)한 이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2000년 2월 18일 초, 중, 고교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어 4월에 영어 활성화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TETE)’을 7차 교육과정 시행연도인 2001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부터 실시해서 2002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교 1학년, 2003년 중학교 3학년과 고교 2학년, 2004년 고교 3학년 등으로 확대 적용해 간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반영하여 제 7차 및 개정 7차 교육과정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영어 교육의 기본 방향과 목표로 설정하고, 생활 영어와 실용 영어를 중시한 의사소통 기능을 강조하였다. 수업을 목표어로 진행하는 수업방법은 EFL상황의 외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언어습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교수 방안으로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Curtain, 1993; Neil, 1997). 언어가 교실의 주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수단으로 사용되면 학습자들은 그 목표 언어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조현주, 2001; Ellis, 1984).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의 또 다른 장점은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자들의 자신감을 고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 정책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많은 수의 교사들로부터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다. 정책 자체로서는 바람직하나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의 정책에 대한 반대 이유는 교사들의 영어 구사력 부족이 대표적이다. Willis(1981)도 교사의 유창성 부족에서 오는 자신감의 상실, 학생과의 신뢰 상실과, 나아가 학생의 학습 불안 및 학습 성취의 저하까지 초래 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은 이명박 정부의 ‘영어 공교육 방안’에 힘입어 더욱 관심이 증폭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초등 영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TETE의 현실 및 TETE에 대한 기본 실태, 인식 조사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2001년 이 정책의 실시 이후 10년 가까이가 되는 이 시점에서 이 정책이 초등 영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실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중간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부산 지역의 초등학교 영어 전담 교사들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영어로 하는 영어 교육 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해봄으로써 TETE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 및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2 연구 과제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에 대한 초등학교 영어 전담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 (2) 또한 교직 경력에 따라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에 대한 인식이 다른가?
- (3)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는 어떠한가?
- (4) 또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에 대한 인식이 다른가?

1.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에 대한 초등학교 영어 전담 교사와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시 해운대구와 남구의 초등학교를 다니는 5학년 학생 162명과 부산 지역의 영어 전담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들과 교사들의 의견으로 일반화 하지 못한다.

둘째, 연구 방법 측면에서 교사들들의 의견은 설문 조사만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교사가 자신의 능력이나 수업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 솔직하게 대

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수와의 직접면담이나 수업 일지, 수업 참관 등을 통한 질적 연구가 요구된다.



II. 이론적 배경

2.1 TETE의 정의

교육부(2000)는 TETE에 대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교수-학습 진행과정상 필요한 지시어, 간단한 인사말, 의사표시, 간단한 대화 등을 영어를 사용하여 실용적인 영어를 학습하는데 도움을 주는 영어 교수-학습이라고 정의하였다. TETE 정책의 실시 취지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실 내에서 목표언어인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영어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되 가급적 모국어 사용을 피하고 교실 영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TETE를 교실영어(classroom English)라고 정의하였으며 김성연(2002)은 학생과 교수자간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영어 전용 수업을 지칭하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다. 이러한 용어들에는 TETE(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CE(Classroom English), EOE(English-only Education), EOI(English-only Instruction)등이 있다.

CE(Classroom English)는 인사하기, 출석확인하기, 수업의 다음 단계 소개하기, 수업의 시작 및 마무리하기 등과 같은 수업의 절차적인 설명을 목표어(Target language)인 영어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Willis, 1981). TETE(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와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는 교사가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가급적 모국어 사용을 피하고, 목표어인 영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TETE와 TEE는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활동을 하거나 학생들과 대화할 때 가능한 한 자주 영어를 사용하여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영어를 학습자와 교사간의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EOE(English-only Education)와 EOI(English-only Instruction)는 공통적으로 수업 중에 모국어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영어로만 의사소통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어민이 아닌 내국인 영어 교사(non-native teacher of English)가 목표어인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TETE라고 하겠다.

Curtain(1993)은 EFL 언어 학습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 방법으로 원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목표어를 교실의 주된 상호작용 수단으로 사용하여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언어 사용 환경에 몰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언어 사용 기회를 늘린다는 것이다.

2.2 TETE에 대한 사회적 요구

2.2.1 정치·경제적 필요성

영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기술 등의 여러 분야에서 국제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어 사용의 기회를 학교에서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의 국력이 신장되고, 외교 관계의 폭이 넓어지며, 해외 무역이 증가하고,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 사용 국가는 물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고, 해외여행이 빈번해지면서 외국인

과 의사소통 수단으로 영어를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는 제 2언어로서의 영어나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교육하는 것보다는 국제어로서의 영어 교육을 지향하여 영어 사용 기회를 확대하고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점차 많아지게 된 것이다.

2.2.2 영어 교육 환경의 변화

외국에서 발표된 영어 교육 연구 결과와 이론이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1960년대 이후에는 이민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그 나라 국내의 사회적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외국어 교육과 제2 언어로서의 영어(ELS) 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였다. 이 나라들은 해외에서 이주해 온 이질적인 이민자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과 이민자들을 사회·문화적으로 단기간에 자국 문화에 적응시켜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나라들은 이중 언어 정책을 실시하여 여러 가지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 중에서도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학교의 모든 교과나 영어 교과를 가르칠 때 목표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수 이론이 교실에서 영어를 교수어로 사용하여 수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된다. 그 반면에 영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는 사회재건주의 사조(reconstructionistic approach)의 영향을 받아 외국어 교육도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주된 목표를 두어 외국어를 가르쳐오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 배양 중심의 영어 교육이 여러 나라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에 실질적으로 도입되었다(김규현 외, 2000). 또한, 진보주의가 영어 교육 현장에 도입되면서 영어 교육에서도 학습자 중심의 지도와 개별화 교육, 열린 수업 등을 적용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사의 역할과 교사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달라지고 있다. 즉 진보주의와 인본주의 교육관이 영어 교육에 도입되어 학생 중심, 인간 중심의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영어 교사가 영어 교과를 통해 학생들에게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려면 먼저 학습자들이 교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용이성을 고려하여 학습 경험을 조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영어 교사는 영어 사용 능력과 교수·평가 기술 등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 사용 능력, 교수 기술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김덕기, 1994).

2.2.3 영어 교육의 성격과 목표의 변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목표가 과거에는 언어 능력의 배양에 역점을 두었으나 최근에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언어적 능력은 언어를 기계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의사소통 능력은 메시지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말한다. 물론 이 두 개념은 분명 다른 것이지만 완전히 서로 독립된 것은 아니다. 언어적 정확성이 의사소통 과정을 촉진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적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Rivers(1990)는 ‘skill-getting’과 ‘skill-using’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skill-using’이란 개인이 의도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과 구조에 초점을 두고 의식적으로 이를 선택하는 기계적인 skill-getting과 의식적으로 의미에 초점을 두는 창조적인 skill-using사이의 상당한 공백 때문에 이를 채워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들의 공백을 연결하는 다리에는 교실 영어의 사용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

러한 다리 역할을 하는 활동 없이 구조중심에서 의사소통 중심으로 갑자기 전환한다면 학생들은 그들의 모국어 습관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2.2.4 영어 능력 평가 방법의 변화

제 4차 영어과 교육 과정부터 지도와 평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영어 시험에서 문법 중심의 언어 능력 평가가 중심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영어 학습의 중점이 어휘와 문법적 지식이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학습으로 전환되고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단편적인 언어 능력의 측정과 함께 평가의 타당성을 재인식하고 의사소통 능력 측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조의 변화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듣기 평가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교육부, 1999).

타당도란 시험 문항이나 내용이 측정하려는 목적과 일치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제로 어느 정도 정확히 측정하고 있느냐를 말한다. 예를 들면, 언어 기능 중 듣기 능력을 측정하는 경우 실제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야 하며, 말하는 능력은 실제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학생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의 대화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타당성이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이윤, 1999).

2.3 TETE와 영어 교육과정

해방이후 시작되어 1991년 제 5차까지의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정확한 발음과 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였고,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즉, 선언적 지식 중심의 영어교육 과정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교실에서는 언어 기능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제 6차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부터는 국제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 실질적인 목표를 두었다(김덕기, 1994). 이는 국제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의사소통 능력 중심으로 영어 교육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TETE를 적용하도록 권장했다. 우리나라 영어교육 과정에 제시된 목표달성을 위해서 TETE를 적용해야 할 필요 정도를 배두본(2002, p. 145)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 외국어 교육의 목적과 영어 사용 수업의 필요 정도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요도	TETE 필요성	중요도	TETE 필요성	중요도	TETE 필요성
언어기능이해	중	하	중	중	중	상
연습기회 제공	중	중	중	중	중	중
독해력 배양	하	하	중	중	상	상
외국문물 이해	중	중	중	중	중	중
의사소통능력 배양	중	중	중	상	상	상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추구하는 영어교육의 목적은 다르며, TETE에 대한 필요성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영어 교육을 통해 언어기능을 이해시키고, 영어를 연습할 기

회를 제공하며, 영어 독해력 배양, 외국의 문화와 문물의 이해,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학교 급별로 그 중요성이 다르므로 교육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TETE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내용의 구성체계를 TETE와 관련지어 해석해보면 변화를 알 수 있는데 제1차부터 제5차까지의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습내용의 구성체계는 언어기능을 듣기·말하기·읽기·쓰기로 나누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어휘·문형·문법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선언적 지식을 기르도록 언어 연습과 훈련을 중요시 하나 TETE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제6차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구성은 언어기능과 의사소통기능을 복합한 구조기능 중심의 교육과정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언어의 구조적 접근을 부수적으로 하고 의사소통 기능에 다른 언어 형태를 제시하여 교육 내용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영어과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수준을 달리하여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영어 독해, 영어 회화, 영작문, 실무 영어 등의 교과를 개설하여 교과별로 학습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이는 논리적 사고와 실용영어의 배양을 위한 것으로 영어의 정확정보다는 유창성을 기르는 활동에 중점을 두어 영어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즉, TET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TETE의 적용을 권장한다고 볼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영어를 국민 공통 기본과목의 하나로 선정하고 초등학교 3~6학년은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년간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고등학교 2학년부터 영어 I, 영어 II, 영어 독해, 영어회화, 영어 작문 등 5개의

교과를 선택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이 교육과정 체제에 따라 학년별 또는 단계별로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과정과 하위과정으로서 보충과정과 심화과정을 두어 내용을 구성한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 정도를 고려하여 개별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언어 구사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여 TETE를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의 내용구성과 중점사항을 보면 최근에는 목표보다는 학습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언어의 기능별 지도와 함께 통합적 지도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자간의 의사소통 활동을 극대화 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 교육과정은 TETE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2.4 TETE 관련 언어 습득이론

TETE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단지 학습이 아니고 습득하게 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우선 학생들이 영어를 어떻게 습득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Krashen (1982)의 제2언어 습득가설과 Long(1985)의 상호작용가설을 통해 TETE 관련 언어 습득이론을 살펴보겠다.

2.4.1 Krashen의 제2언어 습득가설

Krashen(1982)은 모국어뿐만 아니라 제 2언어 환경에서도 학습자에게 이해 가능한 입력을 충분히 제공하면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첫째, 습득·학습가설(Acquisition-Learning Hypothesis)은 습득과 학습은 외국어를 배우는데 확실히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습득은 자연스런 언어 환경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배워지는 언어 지식으로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의식적으로 문법 규칙을 학습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영어를 접하여 일정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학습은 인위적인 환경 속에서 언어 규칙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의식적인 과정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실에서는 의식적인 규칙의 학습이 강조되었고 오류 수정이 학습자의 규칙 학습에 도움이 되는 생각이 일반적이었으나, TETE를 통하여 교실에서 습득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둘째, 감시 가설(Monitor Hypothesis)은 학습자들이 학습한 언어 지식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언어를 사용할 때 언어가 문법에 맞는지 점검하는 기능을 할 뿐이라는 가설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의식적인 학습이 아닌, 무의식적인 습득을 할 수 있도록 TETE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자연 순서 가설(The natural order hypothesis)은 자연 순서에 따라 언어 규칙들을 습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어를 습득할 때에도 교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모국어를 습득할 때와 비슷한 순서로 문법을 습득해 나간다는 것이다. 의식적인 지도보다는 교사의 외국어 사용을 통해 많은 언어 입력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넷째, 입력 가설(Input Hypothesis)은 'i+1'로 표시되는데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어 입력을 충분히 받아야 하고, 목표어의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학습자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의 입력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이론적 가설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모국어

를 습득하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외국어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직 과거형을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과거시제가 들어가 있는 언어입력 자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Richard-Amato(1996)는 특히 제2언어의 학습 초기와 중기 단계까지 교실에서 목표어 사용이 큰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하였다. 외국어에 집중하여 그 언어로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Gebhard, 1982). Fillmore(1982)도 외국어 수업교실에서 언어입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학습자들이 언어에 관한 문법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언어입력이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상황에서 주어지면 언어습득을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제2언어(ELS)로서 배우는 영어권 국가와 달리 영어를 외국어(EFL)로써 배우는 환경에서 TETE 수업을 진행할 때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런 최적의 입력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의적 여과기 가설(Affective Filter Hypothesis)은 성공적인 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정의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동기, 자신감, 불안감 등과 같은 정의적 여과기가 낮아야 한다는 가설이다. 요컨대, 정의적 여과기는 그 정도가 높을수록 입력을 낮게하고 그 정도가 낮으면 입력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의적 여과기를 낮추어 학습 분위기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미 여러 번 강조되었듯이,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의 가설은 다 같이 교사들에게 언어지식을 의식적으로 학습시키면 언어 사용 능력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언어의 구조와 문법적 지식을 학습시켰던 교사 중심의 교수 방법에서 벗어나서, 목표어를 사용하여 어린이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과 같이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자연스런 언어 환경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을 암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교실영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학습자들이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영어에 대한 동기 부여와 자신감을 심어주도록 하는 수업을 조성해서 학생들의 효과적인 목표어 습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2.4.2 Long의 상호작용가설

Long(1985)은 이해 가능한 언어입력보다는 그 입력 자료들을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가 상호 소통되고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언어습득이 일어난다고 보는 상호작용가설(Interaction Hypothesis)을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설은 학습자가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의미를 서로 조율하는 의미 협상과정에서 진정한 언어 습득이 일어난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의미 협상과정은 새로운 언어 자료를 이해 가능한 언어 입력으로 만들어 주고, 이해 가능한 언어 입력 자료는 언어 습득을 유도하기 때문에 의미협상과정에서 언어 습득이 더 효과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교실에서 적극적인 의미협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언어 수준에 맞추어서 교사의 언어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의사 전달의 표현들을 제공하는 것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것은 의사소통 중심의 교실에서 교사 언어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Jonson(1985)에 따르면 교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면서 대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사가 학생의 반응(respo

nse)에 추가하여 거듭 반복해서 말해주는 방식을 주장한다. 학습자가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사는 반복해서 질문을 하거나 다른 문형으로 고쳐서 말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도와주고 학습자는 풍부한 언어 입력 자료를 받아들이면서 의사소통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영자와 고소영(2000)은 교실에서 의미 구성적인 상호교류가 필요한 방식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실에서 사용되는 교사 언어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상호작용 가설은 교사의 교실영어 사용이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TETE 관련 언어습득이론인 Krashen의 입력가설, Long의 상호작용가설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외국어 습득의 조건에는 이해 가능한 언어 입력 및 학습자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이해 가능한 언어 입력 자료들을 활용한 활발한 상호작용이 언어 습득의 관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 습득요건에는 교실 수업이 의사소통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학습자들과 관련된 흥미롭고 의미 있는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써 배우는 환경에서 성공적인 언어습득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 외국어 습득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는 학습자들의 눈높이와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고 이끌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2.5 선행 연구 고찰

2.5.1 TETE 에 대한 긍정적 인식

TETE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밝혀낸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ETE는 학습자들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한다. 박상옥(1996)은 교실영어 수업을 받은 실험집단이 전통적 문법 설명과 번역위주의 우리말 수업을 받은 통제집단보다 구두시험(oral test)에서 훨씬 더 유창성이 뛰어났다고 한다. 이는 TETE가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한 거시라고 할 수 있다. 또 황지영(2006)은 TETE를 시행한 두 학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TETE와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설문에 답한 학생들의 68%가 TETE가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송민숙(2002)도 듣기와 말하기 수업을 중심으로 TETE가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했는데, 학생들의 듣기와 말하기 기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말하기 능력 평가에서 유의미한 성적 향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영어 입력제공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TETE에서 교사는 학생 수준에 맞는 이해 가능한 언어 입력을 제공하여 언어습득을 촉진한다. 안수웅(1993)은 외국어로서의 영어 말하기 개선 방안에서 교실에서의 언어 입력의 제공 없이는 말하기, 듣기의 개선은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서는 교사는 학생 수준

에 맞는 이해 가능한 언어 입력을 제공하여 학생의 언어 습득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학생들에게 외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흥미와 자신감을 부여해 준다. 광노행(2001)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 자료와 활동을 통한 TETE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인식과 정의적 변화를 연구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TETE는 흥미를 높여주고 낮은 동기의 학생들에게도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가 부여되었다고 평가했다. 낮은 수준의 보충반 학생들의 자신감은 떨어졌지만 중, 상위 수준의 심화반 학생들의 자신감은 높아졌다는 결과를 볼 때, 교사는 TETE를 진행할 때 학습자의 수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지연(2004)은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이 중등학교 학습자의 흥미도 유발과 학업 성취도 변화에 관한 실험 연구에서 한 개 반은 TETE를 시행하고, 다른 한 반은 한국어 위주의 영어 혼용수업을 7개월간 시행한 후 설문 조사 결과 TETE를 진행한 반이 흥미도가 높게 나타났고, 중간고사 성적에서도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흥미도 유발이 학습자로 하여금 영어에 보다 관심을 갖게 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도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Rosenthal과 Solane(1984)은 일찍이 외국어 지도에서 목표어를 사용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자신감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정민정(2001)도 교사의 교실영어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학생들 대부분이 영어 시간을 매우 재미있게 여기고 학습의욕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넷째, TETE에서 학생들은 목표어에 집중함으로써 그 언어로 생각할 기회가 제공된다. Gebhard(1982)는 교실에서 목표어의 사용이 학습자의 외국어 학습에 도움을 주는 이유로 학습자가 그 외국어에 집중하여 그 언어로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데 두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시간에 영어로 된 입력을 받으면 모국어로의 번역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영어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다섯째, TETE는 학생들의 학습태도와 학업 성취도에 큰 효과를 가져온다. 박상옥(1996)은 한 여자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한국인 영어 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 후 그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TETE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학생이 92%였고, 처음에는 두려웠으나 영어로 말하는 것이 쉬워졌다, 자신감이 생겼다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한 학생이 95%였다. 또한, 영어로 진행된 수업을 한 학기동안 받은 후에, 말을 걸어오는 외국인에 대해 절호의 기회로 삼아 말을 해 보겠다는 학생이 35%와 두렵지만 말을 해 보겠다는 학생이 53%가 되어 TETE 실시 이전의 각각 5%,와 36%보다 뚜렷이 외국어 사용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고 한다.

여섯째, TETE를 통해 교사들의 영어 구사력이 향상되고 자신감도 증진된다. 최진황(2000)은 교사들이 영어를 실제 수업에서 꾸준히 사용하면 교사들도 영어회화능력이 향상되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적어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교실 밖에서는 영어를 접할 기회가 없는 우리의 교육 환경에서는 영어 구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교사라도 영어를 말하고 듣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갖지 않으면 영어 실력이 감퇴할 수 있다. 그러므로 TETE의 실천으로 교사에게 자신감을 부여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미자(2002)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선호했고, TETE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교사 자신도 TETE에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TETE의 실행은 학생뿐만 아니라 영어 교사들의 영어 구사력에도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는 것도 언급하였다.

일곱째, TETE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진황(2000)은 학교에서 TETE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사설 학원을 통해 영어회화를 배우는 것의 대체효과를 주어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교실에서의 TETE는 앞으로 영어 공용화나 생활화를 실험하는 장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제 TETE 정책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해보겠다.

2.5.2 TETE에 대한 부정적 인식

TETE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밝혀낸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국어 교육의 약화와 영미 문화에 대한 사대주의 위험이 있다.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등학교 학생의 경우 교실에서 영어만 사용할 경우 모국어 습득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며, 우리 문화의 고유한 가치가 영미 문화의 그늘에 가려 문화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 획일적인 TETE 수업과 같은 어린 시절의 영어 교육에 의해 미국문화에 대한 편향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김인회, 2000).

둘째, 교사들의 영어 구사력이 아직 부족하다. 이신화(2005)는 교사가 원어로 원활한 영어 수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영어 구사능력과 달리 실제 수업진행과 관련된 전문적인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첫째는 영어 전반에 걸친 영어 구사 능력, 둘째는 영어를 교실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상호작용과 수업운영에 필요한 교실영어 구사능력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이해력에서도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즉,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은 영어 학습에 불안감을 느껴 학습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한다. TETE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수업 중 영어 사용 비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박선휘(2004)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교사의 72%가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대답했다고 하였다. 반면 일반적으로 TETE 수업 진행에 가장 큰 장애로 지적되고 있는 교사의 영어 능력 부족은 17.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사가 영어로 진행하기만 하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저절로 향상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한다. 그러나 교사의 영어 구사력도 중요하지만 의사소통 능력이란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양인근(2004)은 2003년 서울 시내 강남과 강북에 소재한 4개 중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TETE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 면에서 볼 때 과반수가 넘는 교사들이 TETE 수업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여 TETE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ETE 수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생들의 영어 실력 수준에 따라 TETE 수업에 대한 효과가 달리 나타났다. 상위권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반면 하위권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은 TETE 수업의 효과는 중학교 1,2학년 때와 비교하면 중학교 3학년 때가 영어 실력이 더 향상된다고 대답하였다. 이것과 관련하여 TETE 수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개선 방안으로 교사가 실력을 갖추 수 있도록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학생들의 수준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준별 이동 수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도현(2006)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진행 수업의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21.3%가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반면 41.2%가 대체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62.5%

의 학생이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영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도와 참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지면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 수준과 흥미도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TETE는 점점 교사 혼자 수업하는 주입식 수업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는 수업만 영어로 진행될 뿐 학생들의 이해 정도에 상관없이 교사 위주의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넷째, 우리의 교육현실과 거리가 있으므로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김인회(2000)는 획일적인 영어교육정책은 옳지 않다고 말하며 아직 일선 학교들이 TETE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 영어교육이 처한 한계를 인정하고 현실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TETE의 진행을 어렵게 하는 교육현실로는 학생들의 낮은 영어 수준, 교실 규모, 교과서 내용, 입시제도 등을 들었다(김현미, 2001 재인용).

교육부(2006)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3.6명, 중학교는 35.5명으로 과밀학급의 향상을 보인다. 이 수치는 평균치이므로 대도시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학생들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서는 교실 수업이 음성언어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생 수가 많은 경우 영어 의사소통을 위한 음성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요컨대, 영어가 유창한 원어민 교사도 학급의 인원수가 많으면 통제를 하지 못하고 일부 학생들과 대화로 수업이 끝나기 쉬운데, 교과서 진도와 평가의 부담까지 안고 있는 영어 교사에게 TETE의 실천은 힘겨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학부모들이 학교에서의 TETE를 위해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

될 수도 있다. 새 정부의 영어 교육 강화정책으로 내세운 TETE 정책은 사교육비 부담 감소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상회화를 가능하게 하는 취지로 2010년부터 실시해서 2012년까지 전교과목에 적용할 방침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언론매체, 현장 교사 및 학부모들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생들에게도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을 조성해서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TETE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어떤 학부모들은 현 교육현실의 여건상 학급당 학생들의 능력 편차가 심한 상태에서 TETE는 회화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학원이나 과외로 실력을 보충하게 할 원인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선행 연구들을 요약해보면, TETE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 습득력의 증진, 교사와 학생들의 자신감 및 흥미도 제고,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감소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 영미 문화에 대한 사대주의 위험, 교사들의 영어 구사력 부족, 아이들의 수준차로 인한 이해도 문제, 우리나라 영어 교육 현장과의 괴리, 영어 사교육비 부담 증가의 원인 제공 등 단점도 많았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영어 전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TETE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현재 초등 영어 교육 현장에서의 TETE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초등 영어 교사들의 교직 경력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른 TETE에 대한 인식 비교를 통하여 영어과 수업에서 앞으로 TETE를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Ⅲ. 연 구 방 법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현재 부산 지역 초등학교 영어 전담 교사 60명과 부산시 해운대구와 남구 소재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62명이다. 응답 교사 60명에 대한 성별, 연령, 교직 경력에 따른 비율은 <표 2>와 같다. 교사 응답자 구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교사 6명(10%), 여교사 54명(90%)이었고, 연령은 20대가 27명(45.5%)로 가장 많고 30대가 20명(33.2%), 40대가 10명(15.8), 50대가 3명(5.5%)로 그 뒤를 이었다. 교직경력별로 살펴보면 10년 미만이 31명(51.6%)으로 가장 많고, 10~20년 미만이 22명(36.7%), 20년~25년 미만이 7명(11.7%)이었다.

<표 2> 초등학교 영어 전담 교사 설문 응답자 분석

구 분		빈도	백분율
성 별	남	6	10
	여	54	90
연 령	20대	27	45.5
	30대	20	33.2
	40대	10	15.8
	50대	3	5.5
교직경력	10년 미만	31	51.6
	10~20년 미만	22	36.7
	20년~25년 미만	7	11.7
계		60	100

응답 학생들의 남·여 비율 및 상·하 집단 구성 비율은 <표 3>과 같다. 아동들의 학업성취도는 지난 2010년 3월 9일에 부산시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된 교과학습 진단평가의 영어과 성적을 자료로 하였다. 진단 평가지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4점, 모든 문항의 형식은 5지선다형이었다. 162명의 영어 진단평가 점수를 모두 수집하여 평균(96.68)을 구하고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평균점수보다 높은 학생들은 ‘상’집단 평균 점수보다 낮은 학생들은 ‘하’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3> 초등학교 학생 설문 응답자 분석

구 분		빈도	백분율
성 별	남	89	54.9
	여	73	45.1
학업 성취도	상	120	74.1
	하	42	24.9
	계	162	100

학생 응답자의 89명(54.9%)이 남학생이었고 여학생은 73명(45.1%)으로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었고 학업 성취도별 구성은 ‘상’ 집단이 120명(74.1%), ‘하’집단이 42명(24.9%)이다.

3.2 연구 도구

3.2.1 교사용 설문지

본 연구 조사에서는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 정책이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

악하고자, 맹홍렬(2005)의 논문을 참고로 하여 만든 설문지를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교사용 설문지 문항 구성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교사용 설문지 문항 구성 내용

영역	문항유형	문항
TETE 실시 정도	선다형	1~2
TETE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선다형	3~4
TETE 효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	폐쇄형	5~11
	선다형	12
TETE 실행을 위한 준비	선다형	13~15
TETE 실행의 어려움과 개선점	폐쇄형	16~17
	선다형	18~22

교사용 설문지는 5개의 영역으로, TETE 실시 정도(2문항), TETE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2문항), TETE 효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8문항), TETE 실행을 위한 교사의 준비(3문항), TETE 실행의 어려움과 개선점(7문항)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세부 문항을 갖고 있는 문항은 14문항이며, 따라서 교사용 설문지는 세부분항까지 포함하여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다형 문항들은 일부 문항(14, 18, 19, 21, 21, 22번)을 제외하고 모두 5지 선다형 문항이었고 14번 문항은 복수응답이 가능한 문항이었다. 폐쇄형 문항의 경우 Likert 5단계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그저 그렇다(3점), 조금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용 설문지의 폐쇄형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0.743이다.

3.2.2 학생용 설문지

본 연구는 교사용 설문을 위주로 하여 이루어지며 학생용 설문지는 좀 더 정확한 결과 분석을 위한 보조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학생용 설문지의 구체적 문항 구성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학생용 설문지 문항 구성 내용

영역	문항유형	문항
TETE 활용 실태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선다형	1~14
	폐쇄형	15~16
TETE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폐쇄형	17~20
	선다형	20-a,b

학생용 설문지는 총 2개의 영역, 즉 TETE 활용 실태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16문항), TETE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4문항)으로 총 20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다형 문항들의 경우 4지 또는 5지 선다형이고 폐쇄형 문항들의 경우 교사용 설문과 동일하게 Likert 5단계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용 설문지의 폐쇄형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0.668이다.

3.3 자료 수집 절차 및 분석 방법

설문지 조사는 2010년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교사용 설문지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설문 대상들을 만나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응답하도록 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 설문

지의 경우에는 해당 담임교사에게 부탁하여 전달하였다.

설문 조사에서 얻어진 양적 자료는 SPSS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예비연구로서 폐쇄형 문항(Likert-scale 방식)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조사 후에 교사와 학생 집단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모든 문항에 대해서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사의 경력과 학생의 학업 성취도 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선다형 문항 응답에 대해서는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며, 폐쇄형 문항들로부터 얻어진 자료들에 대해서는 평균값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IV. 연 구 결 과

4.1 TETE에 관한 초등학교 영어 전담 교사들의 인식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 정책에 대한 초등학교 영어 전담 교사들의 인식을 알기 위해서 설문지를 TETE 실시 정도, TETE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TETE 효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 TETE 실행을 위한 교사의 준비, TETE 실행의 어려움과 개선점의 5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4.1.1 교사의 TETE 실시 정도

교사가 영어 수업에서 어느 정도로 영어를 사용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에 대해서는 <표 6>에서와 같이 영어를 절반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86.8%였지만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0%영어로 진행하는 교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수업 시간 영어 사용 정도

구분	빈도수	백분율
영어 0%	0	0.0
영어 25%	8	13.2
영어 50%	26	43.4
영어 75%	26	43.4
영어 100%	0	0.0
계	60	100

수업 내용 영역별 영어 사용 정도를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표 7> 과 같이 응답하였다.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영역은 인사하기, 교과서 펴기 등의 지시, 칭찬 및 격려와 같은 수업 진행에 필요한 교실 영어였고, 어휘 및 문법 설명, 평가를 위한 지시, 오류 수정 영역 등 아이들에게 잘못된 개념을 심어주거나 완전한 이해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서는 대부분 모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수업 내용 영역별 영어 사용 정도

구분	인사하기	수업목표 제시	지시	타 활동 이동	어휘 설명	평가를 위한 지시	문법 설명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영어0%	0(0.0)	4(6.7)	2(3.3)	2(3.3)	10(16.7)	12(20.0)	28(46.7)
영어25%	0(0.0)	12(20.0)	4(6.7)	6(10.0)	18(30.0)	20(33.3)	28(46.7)
영어50%	0(0.0)	18(30.0)	14(23.3)	16(26.7)	22(36.7)	14(23.3)	2(3.3)
영어75%	4(6.7)	10(16.7)	24(40.0)	20(33.3)	10(16.7)	8(13.3)	0(0.0)
영어100%	56(93.3)	10(16.7)	16(26.7)	16(26.7)	0(0.0)	6(10.0)	2(3.3)
계				100(60)			
구분	칭찬 및 격려	오류 수정	정숙 및 자세 유지	요점 정리	청·독해 관련 질문	과제 제시	학생 질문에 응답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영어0%	0(0.0)	24(40.0)	6(10.0)	14(23.3)	2(3.3)	8(13.3)	12(20.0)
영어25%	0(0.0)	4(6.7)	10(16.7)	22(36.7)	14(23.3)	10(16.8)	8(13.3)
영어50%	2(3.3)	20(33.3)	22(36.7)	8(13.3)	14(23.3)	20(33.3)	24(40.0)
영어75%	16(26.7)	8(13.3)	10(16.7)	10(16.7)	18(30.1)	14(23.3)	12(20.0)
영어100%	42(70.0)	4(6.7)	12(20.0)	6(10.0)	12(20.0)	8(13.3)	4(6.7)
계				100(60)			

이는 교실영어 부분은 정형화된 표현이 많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교사도 활용하기 편하기 때문이며 어휘 및 문법 설명이나 평가를 위한 지시, 오류 수정 등은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시켜야 하기 때문에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습자의 수준이 낮아 입력을 이해할 수 없는 데도 무리해서 목표 언어만 고집하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생겨 학습자의 언어 습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언어만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목표 언어만 고집하기 보다는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영어 사용 비율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4.1.2 TETE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TETE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는 <표 8>에서와 같이 76.7%의 교사들이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보아 TETE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교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TETE의 필요성

구분	빈도	백분율
꼭 필요하다	8	13.3
때로 필요하다	46	76.7
모르겠다	0	0.0
별로 필요하지 않다	6	10.0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0
계	60	100

TETE의 적정 횟수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정(2010년 현재)에서 3,4,5,6학년 모두 주당 수업 시수가 2시간이고 대부분의 단원이 4차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원마다 1~2회도 주당 1~2회와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주당 1~2회(단원별 1~2회)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3.3%로 가장 많았고 모든 영어시간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26.7%, 월별 1~2회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20.0%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대다수의 교사들이 단원별로 절반 이상의 시간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표 9> TETE의 적정 횟수

구분	빈도	백분율
모든 영어시간	16	26.7
주1~2회	18	30.0
월1~2회	12	20.0
단원 마다 1~2회	14	23.3
계	60	100

4.1.3 TETE의 효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

TETE가 교사에게 주는 효과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표 10>에서와 같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이 교사의 66.6%가 말하기 능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94%,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응답이 75.4%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10> TETE의 효과: 교사 측면

구분	교사의 말하기 능력 향상		교사의 전문성 신장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다	8	13.3	2	3.3	8	13.3
약간 그렇다	32	53.3	22	36.7	32	53.3
그저 그렇다	16	26.7	30	50.0	16	26.7
그렇지 않다	4	6.7	6	10.0	4	6.7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0	0.0	0	0.0
계	60	100	60	100	60	100

TETE가 학습자에게 주는 효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TETE 수업이 학생들의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자가 영어를 접촉하는 기회를 늘려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학습자의 집중력과 흥미도에서는 상당수의 교사가 ‘그저 그렇다’ 이하의 응답을 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 수준차로 인하여 이해도가 낮아지면서 집중도와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쉬운 영어를 활용한 TETE 수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11> TETE의 효과: 학습자 측면

구분	학생의 듣기, 말하기 능력 향상		영어 접촉기회 확대		학습 집중도 제고		학습 흥미도 제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다	8	13.3	14	23.3	2	3.3	2	3.3
약간 그렇다	30	50.0	32	53.3	14	23.3	12	20.0
그저 그렇다	14	23.3	14	23.3	16	26.7	26	43.3
그렇지 않다	6	10.0	0	0.0	22	36.7	14	23.3
전혀 그렇지 않다	2	3.3	0	0.0	6	10.0	6	10.0
합계	60	100	60	100	60	100	60	100

TETE 후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표 12>에서와 같이 학생이 수업을 잘 이해하고 TETE 수업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한명도 없었고 어느 정도 알아듣고 잘 따라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46.7%,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좋아한다는 의견이 10%,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한다는 비율이 무려 43.4%로 나왔다. 따라서 아직까지 초등학생들은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에 적응이 완전히 되지 않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좀 더 쉬운 영어 구사와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교수 방법 적용이 요구된다.

<표 12> TETE 후 학생들의 반응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잘 이해하고 영어로 수업함을 원함	0	0.0
어느 정도 알아듣고 잘 따라하는 편임	28	46.7
잘 알아듣지 못하나 좋아함	6	10.0
부담스러워함	24	40.0
매우 싫어함	2	3.3
계	60	100

4.1.4 TETE 실천을 위한 준비

TETE를 위해 교사가 준비하는 정도와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13>과 같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는 교사는 2명이고 어느 정도 이상 노력하고 있는 교사는 무려 96.7%나 차지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TETE에 대한 심적 부담과 함께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영어 교사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한 교사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13> TETE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정도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노력하고 있다	10	16.7
조금 노력하고 있다	40	66.7
그저 그렇다	8	13.3
별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	0	0.0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2	3.3
계	60	100

TETE를 위한 교사들의 구체적 노력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표 14>와 같이 응답하였다.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인 TETE 수업을 위해 교사들은 연수 참여와 수업에 적용시킬 게임, 활동, 노래 등의 준비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 밖에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및 동료 교사와의 협의 및 수업 참관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표 14> TETE를 위한 교사들의 구체적인 노력 방법

구분	빈도	백분율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	26	19.4
동료 교사와의 협의 및 수업 참관	22	16.4
관련 논문이나 전문 서적 참조	2	1.5
학술발표, 세미나 참석	4	3.0
연수 참여	42	31.3
게임, 활동, 노래 등 준비	34	25.4
기타	4	3.0
계	134	100

현재까지의 영어 관련 연수가 TETE에 기여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15>와 같다. 현재까지 교사들이 이수한 영어 관련 연수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3.3%로 TETE에 대한 영어 연수의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그저 그렇다’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26.7%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TETE 진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연수 과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5> 영어 연수가 TETE에 도움이 된 정도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도움이 되었다	14	23.3
조금 도움이 되었다	30	50.0
그저 그렇다	12	20.0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4	6.7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0	0.0
계	60	100

TETE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연수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16>과 같다. TETE와 관련한 영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국내 어학연수가 5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외 어학연수 기회 확대와 교수·학습 방법 연수가 뒤를 이었다. 이 결과는 TETE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로 꼽는 영어 교사의 유창한 영어 능력을 위해서 교사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프로그램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6> TETE와 관련한 영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필요한 분야

구분	빈도	백분율
해외 연수 기회 확대	12	20.0
국내 어학연수 확대	32	53.3
원어민 교사 초빙	4	6.7
교수 학습방법 연수	12	20.0
기타	0	0.0
계	60	100

4.1.5 TETE 실행의 어려움 및 개선점

TETE 실시에 대해 교사가 느끼는 심적 부담감을 묻기 위해 외부로부터 심적 부담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17>과 같다. 66.7%의 교사가 TETE에 대해 동료 교사, 학부모, 교육청으로부터 어느 정도, 또는 상당히 심적 부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ETE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높은 기대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17> TETE에 대한 심적 부담감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심하게 느끼고 있다	2	3.3
약간 느끼고 있다	25	46.7
그저 그렇다	10	16.7
별로 느끼지 않는다	18	30.0
전혀 그렇지 않다	2	3.3
계	60	100

TETE 수업에 대한 교사의 자신감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TETE에 대해서 보통 이상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90%로 TETE 정책이 시행된 지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국내외적으로 영어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영어 구사력이 신장되어 자신감이 높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표 18> TETE에 대한 자신감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자신 있다	2	3.3
자신 있다	22	36.7
그저 그렇다	30	50.0
자신이 없다	6	10.0
전혀 자신 없다	0	0.0
계	60	100

TETE에 필요한 교사의 능력 중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19>와 같다. TETE를 진행하는 능력 중 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능력으로 학생 수준에 맞는 영어 구사력이 3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업 진행에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 학생들의 말에 대한

응대와 자연스럽게 매끄러운 진행 순으로 높게 나왔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영어 구사 능력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는 학생 설문에서 나온 결과와 같이 교사가 쉬운 영어로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는 응답과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TETE의 개선 방안으로 교사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 확대를 필요로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19> TETE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영어 능력

구분	빈도	백분율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영어 구사력	22	36.7
학생들의 말에 대한 응대	8	13.3
표정, 몸짓 등 언어 외적요소 사용 능력	4	6.7
유창한 발음	6	10.0
수업진행에 필요한 영어사용	10	16.7
학생의 오류 수정능력	2	3.3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진행	8	13.3
계	60	100

TETE 진행시 교사가 오류를 범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표 20>에서와 같이 표현 방법 및 문법, 문장 구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교사들의 영어 표현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이는 교사의 영어 구사력 신장이 TETE의 성공 여부를 결정 짓는 관건임을 보여준다.

<표 20> TETE 진행 시 오류를 범하는 영역

구분	빈도	백분율
문장구조	12	20.0
어휘선택	8	13.3
발음	10	16.7
표현 방법	16	26.7
문법	12	20.0
기타	2	3.3
계	60	100

TETE 실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학생들의 심각한 수준차가 5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자연스럽고 매끄럽지 않은 수업진행과 많은 학급 인원이 뒤를 이었다(<표 21> 참조). 초등학교에서는 수준별 이동반 수업 방식이 여러 가지 실정으로 실시되기가 어렵고 과밀 학급의 문제도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밑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21> TETE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구분	빈도	백분율
교사의 영어구사력 부족	6	10.0
부자연스럽고 매끄럽지 않은 수업진행	10	16.7
교과서의 진도와 내용	4	6.7
학급당 많은 학생 수	8	13.3
학생들의 심각한 수준차이	32	53.3
계	60	100

TETE의 성공을 위한 선행조건을 묻는 질문에는 학생들의 수준차로 인한 수준별 이동수업이 26.7%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음으로 교사의 유

창한 영어 실력과 학급 규모의 소집단화가 뒤를 이었다(<표 22> 참조). 이는 TETE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과 비슷한 양상으로 답변이 나온 것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문제점인 동시에 개선점으로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22> TETE 수업의 선행 조건

구분	빈도	백분율
수준별 이동 수업	16	26.8
교사의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	14	23.3
학급규모의 소집단화	14	23.3
교사의 교수법 및 태도 변화	8	13.3
교사연수 확대	6	10.0
교과서와 교재의 재구성	2	3.3
계	60	100

4.1.6 교직 경력에 따른 TETE에 대한 인식 비교

교직경력에 따른 TETE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선다형 문항의 경우) 및 독립표본 t-검정(폐쇄형 문항의 경우)을 실시하였다. 먼저 교직경력에 따른 TETE 실행정도에서 수업 중 영어 사용 정도는 <표 23>과 같다. 교차 분석 결과 교직 경력에 따른 수업 중 영어 사용 정도는 p값이 0.387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직 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경력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교사들이 수업 중 50% 이상 영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표 23> 수업 중 영어 사용 정도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

구 분	교직경력			χ^2 (p-value)
	0~10년 빈도(백분율)	10~20년 빈도(백분율)	20년 이상 빈도(백분율)	
영어 0%	0(0.0)	0(0.0)	0(0.0)	1.730 (0.387)
영어 25%	3(9.7)	4(18.1)	1(14.2)	
영어 50%	8(25.8)	15(68.3)	3(42.9)	
영어 75%	20(64.5)	3(13.6)	3(42.9)	
영어 100%	0(0.2)	0(0.0)	0(0.0)	
계	31(100)	22(100)	7(100)	

교직 경력에 따른 TETE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적정 수업 횟수에 대한 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4> TETE의 필요성과 적정 횟수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

구 분	교직경력			χ^2 (p-value)
	0~10년 빈도(백분율)	10~20년 빈도(백분율)	20년 이상 빈도(백분율)	
꼭 필요하다	5(16.1)	3(13.6)	0(0.0)	1.424 (0.138)
TETE 때로 필요하다	23(74.2)	17(77.3)	6(85.7)	
의 모르겠다	0(0.0)	0(0.0)	0(0.0)	
필요성 별로 필요하지 않다	3(9.7)	2(9.1)	1(14.3)	
전혀 필요하지 않다	0(0.0)	0(0.0)	0(0.0)	
TETE 모든 영어시간	8(25.8)	7(31.8)	1(14.2)	1.647 (0.512)
적정 주 1~2회	10(32.3)	5(22.8)	3(42.9)	
횟수 월 1~2회	8(25.8)	1(4.5)	3(42.9)	
단원마다 1~2회	5(16.1)	9(40.9)	0(0.0)	
계	31(100)	22(100)	7(100)	

TETE의 필요성 및 수업 걱정 횟수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 또한 p 값 0.138와 0.512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교직 경력별로 TETE에 대한 필요성과 TETE의 수정 걱정 횟수에 대한 인식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TETE의 효과에 대한 교직경력별 t-검정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 TETE의 효과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

문항		교직 경력	평균	표준편차	t 값	p-value
교사 측면	교사의 말하기 능력 향상	0~10년	3.21	0.593	-0.607	0.807
		10~20년	3.65	0.582		
		20년 이상	3.89	0.671		
	교사의 전문성 신장	0~10년	3.54	0.505	0.245	0.547
		10~20년	3.56	0.531		
		20년 이상	3.52	0.493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0~10년	3.44	0.482	-0.839	0.405
		10~20년	3.59	0.463		
		20년 이상	3.55	0.742		
학생 측면	학생의 듣기·말하기 능력 향상	0~10년	3.04	0.365	0.139	0.890
		10~20년	3.30	0.442		
		20년 이상	3.06	0.382		
	영어 접촉기회 확대	0~10년	3.40	0.432	0.512	0.336
		10~20년	3.33	0.325		
		20년 이상	3.83	0.652		
	학습 집중도 제고	0~10년	2.99	0.423	0.647	0.648
		10~20년	2.98	0.523		
		20년 이상	3.01	0.511		
	학습 흥미도 제고	0~10년	3.23	0.413	0.421	0.732
		10~20년	3.35	0.562		
		20년 이상	3.46	0.547		

위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직 경력별 TETE의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는 교사와 학생 측면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교사의 영어 능력과 전문성 신장,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등 교사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평균 점수가 3.5 이상으로 교직 경력에 관계없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ETE 후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에 대한 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 TETE 후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교직경력별 인식

구 분	교직경력			χ^2 (p-value)
	0~10년 빈도(백분율)	10~20년 빈도(백분율)	20년 이상 빈도(백분율)	
매우 잘 이해하고 영어로 수업함을 원함	0(0.0)	0(0.0)	0(0.0)	2.008 (0.145)
어느 정도 알아듣고 잘 따라하는 편임	14(45.2)	11(50.0)	3(42.8)	
잘 알아듣지 못하나 좋아함	3(9.7)	1(4.5)	2(28.6)	
부담스러워함	12(38.7)	10(45.5)	2(28.6)	
매우 싫어함	2(6.5)	0(0.0)	0(0.0)	
계	31(100)	22(100)	7(100)	

TETE 후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교직 경력에 따른 인식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력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아듣고 잘 따라하는 편이라고 인식하는 교사들이 많았고 반대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는 응답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TETE 실천을 위한 준비에 대해 교사들의 노력정도와 노력

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TETE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와 구체적 노력 방법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

구 분		교직경력			χ^2 (p-value)
		0~10년 빈도(백분율)	10~20년 빈도(백분율)	20년 이상 빈도(백분율)	
노력 정도	매우 노력하고 있다	5(16.1)	4(18.2)	1(14.3)	1.939 (0.722)
	조금 노력하고 있다	20(64.5)	15(68.2)	5(71.4)	
	그저 그렇다	6(19.4)	2(9.1)	0(0.0)	
	별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	0(0.0)	0(0.0)	0(0.0)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0(0.0)	1(4.5)	1(14.3)	
계		31(100)	22(100)	7(100)	
구체적 노력 방법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14(20.9)	11(18.3)	1(14.3)	2.885 (0.271)
	동료 교사와의 협의 및 수업 참관	10(14.9)	10(16.7)	2(28.6)	
	관련 논문·전문 서적 참조	1(1.5)	1(1.7)	0(0.0)	
	학술발표, 세미나 참석	2(3.0)	1(1.7)	1(14.3)	
	연수 참여	21(31.3)	20(33.2)	1(14.3)	
	게임, 활동, 노래 준비	17(25.4)	16(26.7)	1(14.3)	
기타		2(3.0)	1(1.7)	1(14.3)	
계		67(100)	60(100)	7(100)	

교직 경력에 따라 TETE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와 구체적인 노력 방법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교직 경력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교사들은 TETE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고 TETE를 위해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과 연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 연수가 TETE에 도움이 된 정도를 교직 경력별로 알아본 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 28> 영어 연수가 TETE에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

구 분	교직 경력			χ^2 (p-value)
	0~10년 빈도(백분율)	10~20년 빈도(백분율)	20년 이상 빈도(백분율)	
매우 도움이 되었다	7(22.6)	6(27.3)	1(14.3)	1.489 (0.614)
조금 도움이 되었다	16(51.6)	10(45.5)	4(57.1)	
그저 그렇다	6(19.4)	5(22.7)	1(14.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2(6.4)	1(4.5)	1(14.3)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0(0.0)	0(0.0)	0(0.0)	
계	31(100)	22(100)	7(100)	

영어 연수가 TETE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교직 경력에 따른 응답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에 상관없이 다수의 교사가 영어 연수가 조금 혹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TETE와 관련하여 영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은 <표 29>와 같다.

<표 29> TETE와 관련하여 영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

구 분	교직경력			χ^2 (p-value)
	0~10년 빈도(백분율)	10~20년 빈도(백분율)	20년 이상 빈도(백분율)	
해외 연수 기회 확대	7(22.6)	4(18.2)	1(14.3)	2.288 (0.851)
국내 어학연수 확대	16(51.5)	13(59.1)	3(42.8)	
원어민 교사 초빙	2(6.5)	1(4.5)	1(14.3)	
교수학습 방법 연수	6(19.4)	4(18.2)	2(28.6)	
기타	0(0.0)	0(0.0)	0(0.0)	
계	31(100)	22(100)	7(100)	

TETE와 관련하여 영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교직 경력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교사들이 TETE를 위해 국내 어학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TETE 실행의 어려움 중 심적 부담감과 자신감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은 <표 30>과 같다.

<표 30> TETE의 심적 부담감과 자신감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

문항	교직 경력	평균	표준편차	t 값	p-value
부 담 감	0~10년	3.56	0.49	-0.269	0.549
	10~20년	3.21	0.53		
	20년 이상	3.93	0.48		
자 신 감	0~10년	3.85	0.67	0.169	0.896
	10~20년	3.35	0.58		
	20년 이상	2.98	0.55		

TETE의 심적 부담감과 자신감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에 상관없이 교사들은 TETE에 대하여 심적 부담을 받고 있는데 이는 사회여러 분야로부터의 관심과 높은 기대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TETE의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 차이는 <표 31>과 같다.

<표 31> TETE의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

구 분	교직경력			χ^2 (p-value)
	0~10년 빈도(백분율)	10~20년 빈도(백분율)	20년 이상 빈도(백분율)	
교사의 영어 구사력 부족	2(6.5)	2(9.1)	2(28.6)	8.586 (0.196)
부자연스러운 수업 진행	5(16.1)	3(13.6)	2(28.6)	
교과서의 진도와 내용	4(12.9)	0(0.0)	0(0.0)	
학급당 많은 학생 수	4(12.9)	3(13.6)	1(14.2)	
학생들의 심각한 수준차이	16(51.6)	14(63.6)	2(28.6)	
계	31(100)	22(100)	7(100)	

TETE의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에 대한 질문에는 교직 경력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이 관계없이 학생들의 심각한 수준차이가 TETE의 실천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TETE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요건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에 대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TETE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요건에 대한 교직 경력별 인식

구분	교 직 경 력			χ^2 (p-value)
	0~10년 빈도(백분율)	10년~20년 빈도(백분율)	20년 이상 빈도(백분율)	
교사의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	0(0.0)	6(27.3)	4(57.1)	20.430 (0.025)
교사의 교수법 및 태도 변화	4(12.9)	4(18.2)	0(0.0)	
교과서와 교재의 재구성	2(6.5)	0(0.0)	0(0.0)	
학급규모의 소집단화	13(41.9)	4(18.2)	1(14.3)	
수준별 이동 수업	12(38.7)	8(36.3)	1(14.3)	
교사연수 확대	0(0.0)	0(0.0)	1(14.3)	
계	31(100)	22(100)	7(100)	

경력이 낮을수록 학급규모의 소집단화와 수준별 이동 수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고 경력이 높은 교사들의 응답은 교사들의 유창한 영어 실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항목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의 증대로 인해 예비교사 양성과정이나 새내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연수와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경력이 낮은 교사들의 영어 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4.2 TETE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

4.2.1 TETE의 활용 실태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초등학생들이 영어시간에 선생님이 어느 정도를 영어를 사용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영어를 50% 정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41.9%로 가장 많았다. 영어 75%가 40.7%로 두 번째로 많았지만 영어 100%로 응답한 학생이 9.9% 밖에 되지 않고 25% 이하를 희망한 학생들도 7.5% 정도 있었다(<표 33> 참조). 이러한 결과는 수업에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서의 한국어 사용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표 33> TETE 진행에서 희망하는 영어 사용 정도

구분	빈도	백분율
영어 0%	3	1.9
영어 25%	9	5.6
영어 50%	68	41.9
영어 75%	66	40.7
영어 100%	16	9.9
계	162	100

TETE에서 희망하는 교사의 영어 사용 방식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34>와 같다. 영어로 수업을 하되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은 우리 말로 해석해 주기를 바라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고 쉬운 영어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갔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22.8%, 수업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쉬운 영어를 사용해 달라는 응답이 16.7%

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아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유창한 영어 구사력이 요구된다.

<표 34> TETE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사의 영어 사용 방식

구분	빈도	백분율
잘못 알아듣는 부분은 우리말로 해석을 해 준다	94	58.0
쉬운 영어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한다	37	22.8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쉬운 영어를 사용한다	27	16.7
무조건 영어로만 한다	4	2.5
계	162	100

TETE 중 내용 영역별로 교사가 주로 사용하는 실제 언어와 교사가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언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35>과 같다. TETE 내용 영역 중 ‘다음 활동을 설명해 주실 때’, ‘문법을 설명하실 때’, ‘과제를 알려주실 때’에는 교사가 실제 사용하는 영어와 한국어의 비율과 학생들이 희망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으나 교과서를 펴고 읽기, 듣기나 읽기를 지시하는 교실 영어 사용 영역에서는 교사가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는 비율(56.2%)보다 더 많이 영어를 사용(63.6%)하기를 바라는 학생들이 많았고 칭찬이나 격려의 상황에서도 한국어 보다는 영어로 해주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또 교사가 수업 중 정숙 지도나 바른 행동을 요구할 때에는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63.3%나 되었다. 따라서 영어 교사는 학생들의 개인별 수준 차이 뿐 아니라 교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교과 내용 영역별로도 한국어와 영어를 적절한 비율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TETE 내용영역 중 교사가 사용하는 실제언어와 학생들이 희망하는 언어

구분	실 제		희 망		계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다음 활동을 설명해 주실 때	90(55.6)	72(44.4)	102(63.0)	60(37.0)	100 (162)
문법을 설명하실 때	86(53.1)	76(44.4)	93(57.4)	69(42.6)	
과제를 알려주실 때	112(69.1)	50(30.9)	100(61.7)	62(38.3)	
교과서 펴기, 덮기, 듣기 또는 읽기 등의 교실 영어 사용	71(43.8)	91(56.2)	59(36.4)	103(63.6)	
칭찬이나 격려	65(40.1)	97(56.2)	56(34.6)	106(65.4)	
조용히 시키거나 바르게 행동하라고 할 때	114(70.4)	48(29.6)	67(41.4)	95(58.6)	

영어 수업시간에 다양한 활동이 주어졌을 때 학생 자신이 영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표 36>과 같이 응답하였다. 짝과 함께 활동할 때에는 43.9%가 대부분 또는 항상 영어를 사용한다고 하였고 소집단 활동에서는 34.6%의 학생이 대부분 또는 항상 영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짝과 함께 활동할 때 보다 소집단 활동을 할 때 영어 사용 비율이 낮는데 이는 소집단 활동 시 영어를 잘하는 한 두 학생에 의해 활동이 주도 되므로 나머지 학생들의 영어 사용 기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사는 다양한 교수법 활용과 집단구성을 통하여 학생들의 발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표 36> 수업 중 동료 활동 시 학생들의 영어 사용

구분	짝과 함께 활동할 때		소집단 활동을 할 때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항상 사용한다	10	6.2	14	8.6
대부분 사용한다	61	37.7	42	26.0
가끔 사용한다	54	33.3	47	29.0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5	15.4	34	21.0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2	7.4	25	15.4
계	162	100	162	100

4.2.2 TETE의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TETE에 대한 흥미도와 이해도, 자신감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37>과 같다. 먼저 TETE에 대한 흥미도에는 ‘보통이다’ 이상의 응답이 90.1%나 되었고 이해 정도에 대한 응답도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가 66.1%, 자신감에 대한 질문에도 85.8%의 학생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TETE에 대한 흥미도, 이해도, 자신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에게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TETE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수 · 학습 활동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표 37> TETE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 이해도, 자신감

구분	흥미도		이해도		자신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다	35	21.6	38	23.5	37	22.8
약간 그렇다	63	38.9	69	42.6	57	35.2
보통이다	48	29.6	36	22.2	45	27.8
약간 그렇지 않다	9	5.6	16	9.9	15	9.3
전혀 그렇지 않다	7	4.3	3	1.9	8	4.9
계	100(162)					

TETE 가 학생의 영어 실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표 38>과 같이 응답하였다. TETE가 자신들의 영어 실력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 학생이 47.6% 였고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10.5%였다. 그리고 ‘보통이다’로 대답한 학생은 41.9%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38> TETE가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 도움을 주는 정도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다	38	23.5
약간 그렇다	39	24.1
보통이다	68	41.9
약간 그렇지 않다	13	8.0
전혀 그렇지 않다	4	2.5
계	162	100

TETE가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9>와 <표 40>과 같다.

TETE가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듣기와 말하기 능력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다음으로 이 수업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서, 마지막으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표 39> TETE가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듣기, 말하기 실력에 도움이 되므로	43	55.8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관심과 흥미를 끌기 때문에	23	29.9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줄기 때문에	10	13.0
기타	1	1.3
계	77	100

TETE가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학급당 인원수로 인한 참여 기회 제한과 이해되지 않는 영어 등을 꼽았고 기타 의견으로는 교사가 너무 쉬운 영어만 사용해서, 아이들을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교사의 영어 사용 등이 있었다. 이는 앞으로 TETE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영어 사용과 한국어의 병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표 40> TETE가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기타	7	41.2
한반에 학생이 너무 많아서 참여기회가 적기 때문에	6	35.3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3	17.6
선생님의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므로	1	5.9
계	17	100

4.2.3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른 TETE에 대한 인식 비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른 TETE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등간척도 문항들의 경우) 및 교차 분석(명목척도 문항들의 경우)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 41>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른 TETE에 대한 의견

문항	학업 성취도	평균	표준편차	t 값	p-value
TETE에서 희망하는 영어사용 비율	상	3.63	0.862	3.056	0.000
	하	3.19	0.780		
TETE에 대한 흥미도	상	2.62	1.168	-2.005	0.049
	하	2.22	0.940		
TETE에 대한 이해도	상	2.78	1.037	-4.260	0.000
	하	2.06	0.901		
TETE에 대한 자신감	상	3.18	1.196	-5.771	0.000
	하	2.13	0.922		

우선 어느 정도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상(평균이 96.68이상)에 속하는 그룹의 평균이 3.63으로 하(평균이 96.68 이하)에 속하는 그룹평균인 3.19보다 영어 사용을 더 희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p=0.003$ 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영어로 하는 수업이 흥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 의 평균도 상 집단의 평균이 2.62로 하 집단의 2.22보다 높다. 이 또한 $p=0.049$ 로서 평균차이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시험성적이 높으며 영어 수업에 흥미도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영어수업에 대한 이해도도 상 집단의 평균이 2.78로 하 집단의 평균인

2.06보다 높고 $p=0.000$ 으로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수업에 대한 이해도 역시 상 집단이 하 집단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신감에 대해서도 상 집단의 평균이 3.18으로 하 집단의 평균인 2.13 보다 높으며 $p=0.000$ 으로 유의하다. 이는 수업에 대한 자신감 역시 상 집단이 하 집단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교사가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언어에 대한 인식 비교에 대한 결과는 <표 42>과 같다.

<표 42>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른 TETE 중 교사가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언어

구분	학업 성취도 '상'		학업 성취도 '하'		χ^2 (p-value)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다음 활동을 설명해 주실 때	64(53.3)	56(46.7)	34(81.0)	8(19.5)	8.222 (0.005)
문법을 설명하실 때	61(50.8)	58(49.2)	31(73.8)	11(26.2)	5.968 (0.017)
과제를 알려주실 때	68(56.7)	52(43.3)	32(76.2)	10(23.8)	5.020 (0.028)
교과서 펴기, 덮기, 듣기 또는 읽기 등의 교실 영어 사용	34(28.3)	86(71.7)	25(59.5)	17(40.5)	13.071 (0.001)
칭찬이나 격려	36(30.0)	8(70.0)	21(50.0)	21(50.0)	5.275 (0.034)
시키거나 바르게 행동하라고 할 때	40(33.3)	80(66.7)	29(68.3)	13(31.7)	15.806 (0.000)

TETE 내용 영역 중 교사가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언어에 대한 질문에 서는 활동을 설명해 주실 때 상 집단은 바라는 설명 희망언어의 비율이 한국어와 영어가 비슷했으나 하 집단의 경우 한국어의 비율이 더 높다. 이는

통계적으로 $p=0.005$ 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법을 설명하실 때 선생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기를 바라는 지에 대해서는 상 집단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비율이 비슷하였지만 하 집단의 경우 한국어를 바라는 정도가 더 많았다. 이는 $p=0.017$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과제를 알려 주실 때를 비교해 보면 상 집단의 한국어, 영어 차이 비율보다 하 집단의 차이비율이 더 큼을 확인 할 수 있고 $p=0.028$ 로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교과서를 펴고 덮거나, 듣거나 읽기,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하는 행동들을 시킬 때 의 희망 언어를 보면 상 집단의 경우는 영어를 바라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하 집단의 경우는 한국어를 바라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또한 $p=0.001$ 로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칭찬하거나 격려해 주실 때 선생님이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언어로는 상 집단의 경우 영어를 더 많은 학생들이 선택했는데 하 집단의 경우 응답자 수가 같다. 이도 $p=0.034$ 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용히 하거나 바르게 행동하라고 하실 때 선생님이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언어는 상 집단의 경우 한국어를 선택한 사람이 40명 영어를 선택한 사람이 80명으로 영어가 더 많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하 집단의 경우 한국어는 29명 영어는 13명으로 한국어를 사용하기를 더 많이 희망하고 있다. 이 결과도 $p=0.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고 있다.

위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수업 중 언어 사용과 내용 영역별 희망하는 언어 모두 ‘상’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해 영어를 더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차이에 따라, 또 내용 영역별로 영어와 모국어의 사용을 적절히 해야 하며 이는 교사의 교수법과 유창한 언어 구사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제 7차 교육과정은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에 대한 방안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 정책이 발표되었다. 2001년부터 TETE 정책이 실시되어 10여년이 되는 시점에서 TETE 정책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현장의 영어전담 교사와 2010년 현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TETE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영어 교사들은 내용 영역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 영어를 50% 이상 사용하고 있다. 내용 영역별로 영어 사용의 비율이 차이를 살펴보면 교과서 쓰기 등의 지시, 칭찬 및 격려와 같은 교실 영어에는 영어사용 비율이 높았고 어휘 및 문법 설명, 평가를 위한 지시, 오류 수정과 같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개념을 심어 줄 가능성이 있거나 완전한 이해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서는 한국어 사용의 비율이 높았다. 정형화 된 교실영어는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의 첫 번째 단계이다. 이 부분을 교사가 자신 있게 사용한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정형화된 교실영어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다 창조적인 언어 사용으로 한걸음 더 나가야 하겠다. 교실에서 창조적인 언어 사용량을 늘리려면 교사가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부분이 없으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의 성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상당수의 교사들이 TETE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TETE의 효과에 대해서도 자신의 말하기 능력 향상,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TETE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듣기·말하기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영어 접촉 기회를 확대시켜 줄 수 있으나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와 흥미도 신장에 관해서는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는 아이들의 수준차와 학급당 학생 수의 과다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교사는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실 안의 모든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를 위해 먼저 학생들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부드러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는 창의적이며 흥미로운 활동 중심, 학생 중심의 교수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 상황에서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언어 사용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언어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수준 차이를 고려한 과제,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유의미한 학습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교사들을 TETE를 위해 연수 참여, 게임·노래 등의 준비,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 동료 교사와의 협의 및 수업 참관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교사들이 효율적인 TETE 실행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연수에 대한 만족도는 교사들의 참여도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다.

넷째, TETE에 대해 교사들은 부담감을 느끼지만 상당한 자신감도 보였다. TETE 수업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영역은 아이들의 수준에 맞

는 영어 구사력과 수업 진행에 필요한 영어 사용, 그리고 학생들의 말에 대한 응대와 수업 진행에 필요한 영어 사용 등으로 교사의 영어 구사력에 대한 어려움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영역은 표현 방법 및 문장구조, 문법, 발음 등으로 이도 교사의 부족한 영어 구사력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TETE의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서는 학생들의 심각한 수준차이와 학급당 많은 인원수, 부자연스러운 수업 진행 등이고 이런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점으로는 수준별 이동 수업, 학급 규모의 소집단화, 교사의 유창한 영어 구사 실력 등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생들의 TETE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많은 학생들이 교사가 영어 수업 시간에 50% 이상의 영어를 사용해 주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영어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못 알아듣는 어려운 부분은 우리말로 해석 해주거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영어로만 진행, 혹은 쉬운 영어로 단계적으로 시작하기를 원했고 무조건 영어로만 이루어지는 영어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내용 영역별로도 희망하는 영어 사용 비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교과서를 펴고 덮기, 듣기나 읽기 지시하기, 칭찬이나 격려 등의 교실 영어는 영어 사용 비율을 높여주기를 희망하였지만 문법 설명, 과제 제시, 다음 활동 안내 등의 영역에서는 실제 교사들의 영어 사용 비율과 희망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내용 영역별로 원하는 영어 사용 비율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학업 성취도 '상' 집단은 '하' 집단에 비해 모든 내용 영역에서 더 높은 비율로 영어를 사용하기를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TETE의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영어 수업에 대한 흥미도, 이해도, 자신감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자신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대해서는, 듣기와 말하기 실력 향상, 영어 수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 증대와 같은 이유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수업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고 학급 당 많은 학생 수로 인하여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5.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TETE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영어 교사 연수가 내실화 되고 다양화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영어 교사들은 교사 연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영어 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교실영어에서 나아가 영어 사용권 나라의 문화나 문맥에 따른 영어 표현의 차이까지도 알고 구사할 수 있는 능숙한 영어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어교사 양성과정에서 원어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강화하여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 양성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임용된 일선 교사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영어 수업에서 필요한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내 어학연수 뿐 아니라 아직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영어권 국가에서의 연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양질의 영어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실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언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영어에 많이 노출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고려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는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학급 당 학생 수의 감소와 함께 수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기자재와 자료의 구비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영어 환경에 접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문맥이나 상황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실 환경도 교사 중심의 일렬식 보다는 수업 내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학생들의 심각한 수준차로 인한 문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사의 언어 사용과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한 수준별 이동 수업이 점차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다.

셋째,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교재와 수업 연구를 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영어 교육 현실에서는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수준차를 극복하고 되도록 많은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교재 개발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업 활동을 조직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 현실은 수많은 공문처리와 행정업무와 같이 수업 외 교사에게 부가된 업무로 인해 수업 준비는 뒷전으로 밀릴 때가 많다.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을 위한 제반 여건이 구비된다 하더라도 수업 내용을 제대로 채울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교수·학습 내용과 질은 교사들의 자료 개발과 교수 방법에 달려 있는 만큼 수업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TETE의 향후 개선방향은 TETE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TETE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평가와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다시 정책에 환류 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완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TETE 정책의 실행을 일선 교육의 공급자인 교사와 학교에 일방적인

지시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
해서 TETE의 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교육 주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영준. (2001).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위한 초등학교 교실영어 및 지도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교육부. (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V)*. 서울: 대한교과서.
- 교육부. (2000). *교실영어*.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곽노행. (2001). *영어 사용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정의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청주.
- 곽선휘. (2004).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도와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
- 권도현. (2006).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춘천.
- 김규현, 서경희, 박용예. (2000).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몰입 학습 프로그램 실시 방안 연구. *영어교육*, 55(2), 281-307.
- 김덕기. (1994). *영어 교육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성연. (2002).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초등교사의 태도. *초등영어교육*, 8(2), 5-30.
- 김애숙. (2004). *교실영어 사용이 중학교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농촌 지역 소규모 학습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광주.
- 김인희. (2000). 영어 원어수업의 의무화. *교육가이드*. http://kdb.or.kr/main17_3.ht 에서 2010년 4월 10일에 검색하였음.
- 김현미. (2001). 이제 교실영어는 가라. *주간동아*. http://donga.com/docs/magazine/weekly_donga/news277에서 2010년 4월 14일에 검색하였음.

- 김혜선. (2001). 교실영어가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맹홍렬. (2005).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에 관한 중학교 영어교사 및 학생들의 인식조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박상옥. (1996). 영어 교육에서 교실 영어 사용의 효과. *영어교육*, 51(1), 3-21.
- 박영예, 이윤. (2001). *초등영어 수업의 길잡이*. 서울: 문진미디어.
- 배두본. (1997). *영어 교육학*. 서울: 한신 문화사.
- 배두본. (2002).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의 조건과 교사의 역할. *영어교육연구*, 14(1), 137-162.
- 송민숙. (2002).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안수웅. (1993). 외국어로서의 영어 말하기 개선 방안. *영어교육*, 46, 120-124.
- 양인근. (2004).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구.
- 우지연. (2004).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TETE)이 중등학교 학습자의 흥미도 유발과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서울.
- 유미자. (2002).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공주.
- 이규선. (2002).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관한 영어교사 및 학생들의 인식 조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 이신화. (2005).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의 실태에 관한 연구 및 제언.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이완기. (2000). *초등 영어 교육론*. 서울: 문진미디어.
- 이영자, 고소영. (2000). 언어학습을 위한 상호교류: 언어조율적, 의미구성적, 학습자 내면적 상호 교류, *응용언어학*, 19(2), 183-196.
- 이 윤. (1999). 초등 영어수업의 평가 방안. *외국어교육*, 6, 197-222.
- 정민정. (2001). *교사의 교실영어 사용빈도에 따른 초등학생의 듣기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경남.
- 조현주. (2001).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천세봉. (2005).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경남.
- 최진황. (2000). *의사소통 중심의 생활 영어 수업 모형 및 교실영어*. 서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황지영. (2006).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과 교사의 고찰*.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Anderson, L. W. (1981). *Asserting affecting characteristics in the schools*. Boston, MA: Allyn and Bacon.
- Brewster, J., Ellis, G., & Girad, D. (1991). *The primary teachers' guide*. London: Penguin Books.
-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 Curtain, H. P. (1993). *An early start: Resource book for elementary school foreign language*. Washington DC: ERIC Clearinghouse on Language and Linguistics.
- Fillmore, H. W. (1982). *Instructional language as linguistic input: Second language learning in classrooms*. New York: Academic

- Press.
- Gebhard, J. G. (1982). Some suggestions for the EFL conversation class. *Forum*, 20, 14-16.
- Goodman, K. (1986). *What's whole in whole language?* Portsmouth, NH: Heinemann.
- Jonson, K. E. (1985). *Understanding communication in second language classro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Amato, P. A. (1996). *Making it happen*. New York: Longman.
- Rivers, W. M. (1990).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in the language class in an age of technology.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46(2), 271-283.
- Rosenthal, A. S. & Solane, R. A. (1984). A communicative approach to foreign language instruction: The UMBC project. *Foreign Language Annals*, 20, 245-253.
- Krashen, S. D.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amon Press.
- Long, M. (1985). *Input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ory*. Rowley, MA: Newbury House.
- Willis, J. (1981).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Essex, England: Longman.

부록 1. 교사용 설문지

설문지

이 설문은 7차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온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에 대한 초등학교 영어 전담 선생님들의 인식에 대하여 조사해 학위 논문 자료로 참고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시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 교육 전공 강기보

■ 각 문항에서 선생님께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별	남 () 여 ()
연 령	20대 () 30대 () 40대 () 50대 ()
교직경력	0~10년 미만 () 10년~20년 미만 () 20년 이상 ()

■ 다음의 각 문항마다 가장 적합한 번호에 V표 해주시거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생님께서는 수업시간에 어느 정도 영어로 수업을 하십니까?

- ① 영어 0% (한국어 100%) ② 영어 25% (한국어 75%)
③ 영어 50% (한국어 50%) ④ 영어 75% (한국어 25%)
⑤ 영어 100% (한국어 0%)

2. 아래의 영역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지 적절한 번호를 써 주세요.

- ① 영어 0% (한국어 100%) ② 영어 25% (한국어 75%)
③ 영어 50% (한국어 50%) ④ 영어 75% (한국어 25%)
⑤ 영어 100% (한국어 0%)

2-a. 인사하기(수업의 시작과 끝): _____

2-b. 수업 목표 제시하기: _____

2-c. 일상적인 수업활동을 위한 지시하기: _____

2-d. 다른 활동으로 옮겨가기: _____

2-e. 어휘 설명하기: _____

2-f. 평가를 위한 지시하기: _____

2-g. 문법 설명하기: _____

2-h. 칭찬 및 격려하기: _____

2-i. 오류 수정해 주기: _____

2-j. 정숙 지도 및 바른 자세 유지시키기: _____

2-k. 요점 정리해주기: _____

2-l. 청해나 독해에 대한 질문하기: _____

2-m. 과제 제시하기: _____

2-n. 학생 질문에 응답하기: _____

3.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필요하다. ② 때로 필요하다.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⑤ 모르겠다.

4.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을 진행하신다면 어느 정도가 알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영어 시간 ② 주 1~2회 정도
③ 월 1~2회 정도 ④ 단위 마다 1~2회

5.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은 교사 자신의 말하기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은 교사 자신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은 교사가 타인의 인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은 학생들의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향상 시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은 학생들에게 영어를 접촉하는 기회를 넓혀줍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0.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여줍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를 높여줍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2.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후 선생님의 생각에는 학생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① 매우 잘 이해하고,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원했다.
② 어느 정도 알아듣고 잘 따라하는 편이다.
③ 잘 알아듣지는 못하나 좋아한다.
④ 부담스러워 한다.
⑤ 매우 싫어하고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13.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위해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노력하고 있다. ② 조금 노력하고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
⑤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14.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위해 선생님께서 노력하고 계신 점을 있는 대로 표시해 주세요.

- ①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 ② 동료 교사와의 협의 및 수업 참관
- ③ 관련 논문이나 전문 서적 참조
- ④ 학술 발표, 세미나 참석
- ⑤ 연수 참여
- ⑥ 게임, 활동, 노래 등 준비
- ⑦ 기타: _____

15. 지금까지 이수한 영어 교과 관련 연수는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 ② 조금 도움이 되었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6.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 때문에 동료 교사, 교육청, 또는 학부모로부터 심적 부담을 받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심하게 느끼고 있다.
- ② 약간 느끼고 있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느끼지 않는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7.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자신 있다.
- ② 자신 있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자신이 없다.
- ⑤ 전혀 자신이 없다.

18.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언어 능력 중 가장 어려운 문제로 느끼시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영어 구사력
- ② 학생들의 말에 대한 응대
- ③ 표정·몸짓 등 언어 외적 요소 사용 능력
- ④ 유창한 발음
- ⑤ 수업 진행에 필요한 영어사용 능력
- ⑥ 학생의 오류 수정 능력
- ⑦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수업 진행

19. 영어로 수업하실 때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문장 구조 ② 어휘 선택 ③ 발음
④ 표현 방법 ⑤ 문법 ⑥ 기타 : _____

20.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어렵게 하는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사의 영어구사력 부족
② 부자연스럽고 매끄럽지 않은 수업 진행
③ 교과서의 진도와 내용 ④ 입시제도 및 평가
⑤ 학급당 학생 수 많음 ⑥ 학생들의 심각한 수준 차이
⑦ 기타: _____

21.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 ① 교사의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 ④ 평가 방법 개선
② 교사의 교수법 및 태도 변화 ⑥ 수준별 이동수업
③ 교과서와 교재의 재구성 ⑧ 기타: _____
⑤ 학급 규모의 소집단화

22. 영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해외 연수 기회 확대 ② 국내 어학 연수 확대
③ 원어민 교사 초빙 ④ 교수 · 학습 방법 연수
⑤ 기타: _____

23. 위 설문 외에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적어 주세요.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1. 학생용 설문지

설문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7차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온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에 대한 학생 여러분의 인식에 대하여 조사해 학위 논문 자료로 참고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시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 교육 전공 강기보

■ () 초등학교 5학년 ()반 ()번 이름: ()

■ 성별 : 남 () 여 ()

■ 2010학년도 영어 교과학습 진단 평가 점수: ()

■ 다음의 각 문항마다 가장 적합한 번호에 V표 해주시거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어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 | |
|--------------------|--------------------|
| ① 영어 0% (한국어 100%) | ② 영어 25% (한국어 75%) |
| ③ 영어 50% (한국어 50%) | ④ 영어 75% (한국어 25%) |
| ⑤ 영어 100% (한국어 0%) | |

2. 영어로 하는 수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① 무조건 영어로만 한다.
- ② 쉬운 영어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한다.
- ③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쉬운 영어를 사용한다.
- ④ 잘못 알아듣는 부분은 우리말로 해석을 해준다.

■ (3~8) 수업 중 다음과 같은 활동 시 선생님께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3. 다음에 무슨 활동을 할 지 설명해 주실 때 한국어 ☐ 영어 ☐
4. 문법을 설명하실 때 한국어 ☐ 영어 ☐
5. 과제를 알려주실 때 한국어 ☐ 영어 ☐
6. 교과서를 펴고 덮거나 듣기 또는 읽기,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하는 등의 활동을 시키실 때 한국어 ☐ 영어 ☐
7. 칭찬하거나 격려해 주실 때 한국어 ☐ 영어 ☐
8. 조용히 하거나 바르게 행동하라고 하실 때 한국어 ☐ 영어 ☐

■ (9~14) 수업 중 다음과 같은 활동 시 선생님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합니까?

9.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 지 설명해 주실 때 나는 (한국어 ☐ / 영어 ☐)로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다.
10. 문법을 설명하실 때 나는 (한국어 ☐ / 영어 ☐)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다.
11. 과제를 알려주실 때 (한국어 ☐ / 영어 ☐)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다.
12. 교과서를 펴고 덮거나, 듣거나 읽기,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하는 등의 활동을 시키실 때 나는 (한국어 ☐ / 영어 ☐)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다.
13. 칭찬하거나 격려해 주실 때 나는 (한국어 ☐ / 영어 ☐)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다.
14. 조용히 하거나 바르게 행동하라고 하실 때 나는 (한국어 ☐ / 영어 ☐)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다.
15. 영어 수업 시간에 짝과 활동할 때 나는 영어를 (항상 ☐ / 대부분 ☐ / 가끔 ☐) 사용하거나, (거의 ☐ / 전혀 ☐) 사용하지 않는다.

16. 나는 영어 수업 시간에 소집단으로 활동할 때, 나는 영어를 (항상 ☐ / 대부분 ☐ / 가끔 ☐) 사용하거나, (거의 ☐ / 전혀 ☐) 사용하지 않는다.

17.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이 흥미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8. 선생님께서 영어로 수업하실 때, 이해가 잘 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9.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시간에 대해 자신감을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0. 선생님께서 영어로 수업하시는 것이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0-a. (위의 20번에서 ① 또는 ②를 선택한 학생들만 답해주세요.)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답을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듣기, 말하기 실력에 도움이 되므로
②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관심과 흥미를 끌기 때문에
③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줄기 때문에
④ 기타 _____

20-b. (위의 20번에서 ④ 또는 ⑤를 선택한 학생들만 답해주세요.)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을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② 한 반에 학생이 너무 많아서 참여 기회가 적기 때문에
③ 선생님의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므로
④ 기타 _____

설문해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